

신지 “가수로서 존재 증명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응원해준 팬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지요.”

누군가는 가수 신지(본명 이지선·사진)의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 들어도 신지 목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98년 그룹 코요태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그가 어느덧 25년 차 가수가 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한 방송사 인근에서 만난 신지는 “18살에 데뷔해 인생의 반 이상을 ‘신지’라는 이름으로

로서의 정체성을 속상해하는 팬들에게 ‘저 여기 있어요’라고 확인시켜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바람처럼 음반에는 코요태의 멤버가 아닌 솔로 가수 신지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냈다.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 조영수와 유명 작사가 강은경이 의기투합한 타이틀곡 ‘바랄게’는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살린 미디엄 템포 발라드곡으로, 신지가 처음 도전하는 장르다.

신지는 “이번 앨범을 녹음하면서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여러 곡을 노래하면서 ‘아 잘하고 싶다’, ‘정말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머리로 여러 번 쥐어뜯었다”고 털어놨다.

수록곡 ‘맘껏’을 작업할 때는 제목 두 글자를 놓고 작사가, 프로듀서와 3~4개월을 고민하기도 했다.

“코요태 멤버인 중진 오빠가 제가 부른 솔로곡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 곡인데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좋은 곡이 많은데 차트 성격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웃음)”

격정과는 달리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처음 제작한 음반 물량은 다 팔렸다고 소속사 관계자는 전했다.

오랜 활동에 이제는 내공도 제법 쌓였을 듯하지만, 신지는 노래하는 때 순간순간 고민이 많다고 했다.

코요태의 ‘순정’, ‘만남’, ‘비상’, ‘팩트’, ‘파란’ 등 여러 히트곡이 사랑받았지만, 최근 발표한 곡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매번 똑같은 것 아니냐’, ‘올드(old)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그는 솔직히 말했다.

신지는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왜 신지 이름으로 이것밖에 못 하나’는 지적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내가 가진 능력, 실력과 비교해 더 높게 평가해주는 분들도 많은 만큼 아직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무대 올림중’이 남아 있다면서 “어느 순간 자신 있게 노래 부르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욕심도 낮고 재밌게 작업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노래했다”고 환히 웃었다.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와 제가 부르기 편하고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좁혀가느냐가 제 평생 숙제가 아닐까 해요. 좋은 노래로 차근차근 들려드려야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신지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팬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가 확 줄어들 설 자리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신지는 “2019년에 코요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아예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다시 일으킨 건 역시 팬들의 응원이었다.

신지는 “저를, 그리고 코요태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은 정말 의리”라며 “그 시절을 함께 보내온 분들이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을 돌아보고 응원한다고 하더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속 부담감을 조금씩 내려놓은 그는 요즘 ‘좋아 보인다’, ‘밝아졌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한다.

내년이면 벌써 데뷔 25주년, 신지는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예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뭐든 다 잘하는 신지로 남았으면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가수로 기억됐으면 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조금씩 이겨내는 중이니까요.”

/연합뉴스

미니음반 ‘올웨이즈 히어’ 발표 “노래 더 잘하고 싶어 고민 거듭” 타이틀곡 ‘바랄게’ 발라드 첫 도전

살았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멋모르고 노래도 잘 질러 댔다”고 회상했다.

그는 “노래하는 신지가 아니었다면 지금껏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 가끔 생각한다”며 “어떤 노래를 불러도, 무엇을 해도 ‘신지잖아’, ‘신지의 목소리잖아’ 라는 말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싱글을 발표하며 가수 활동을 해 온 그는 최근 데뷔 24주년을 기념하는 음반을 내놓았다.

솔로로서는 첫 미니 음반인 ‘올웨이즈 히어(Always here)’, 말 그대로 ‘나 여기 있다’는 뜻을 담았다.

신지는 “가수로서의 신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간 예능, 라디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가수

레트로 감성 살린 ‘스물다섯 스물하나’ 시청자 사로잡다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 1위
IMF 사태 1990년대 배경

최근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한 김태리·남주혁 주연의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레트로 감성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15일 CJ ENM이 발표한 3월 첫째 주(2월 28일~3월 6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PI) 집계에서 tvN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2주 연속 종합 부문 1위에 올랐다. CPI 지수는 342.2를 기록해 전주(333.1)보다 소폭 상승했다.

IMF 사태가 벌어졌던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각자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감에 꿈을 찾아가는 청춘들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다. 김태리, 남주혁, 보나 등 주연 배우를 포함한 출연진의 호연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로 시대적 배경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곳곳에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숨겨진 복고풍 소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작품의 재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이 삐삐와 공중전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만화방을 드나들며, 카세트테이프 노래를 듣고, PC통신으로 채팅을 하는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함을, 199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지난주 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핑계

삼아 경북 포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인물들의 오색찬란한 패션이 주목받기도 했다.

나희도(김태리 분)의 노란색 크롭티셔츠와 선글라스, 고유림(보나)의 멜빵바지와 손수건 머리띠, 문지웅(최현욱)의 형광 고글과 헤어밴드, 지승안(이주영)의 레이어드룩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배경인 IMF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IMF 사태로 펜싱부가 해체돼 국가대표의 꿈을 접을 위기에 놓였던 나희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몰락했던 백이진은 기자라는 또 다른 꿈을 꾸며 성장해나간다.

저마다 시대가 주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인물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청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실 아들’ 지플랫, 신곡 발표 “힙합 아티스트로 인정받겠다”

배우고(故) 최진실의 아들로 잘 알려진 가수 지플랫(Z.flat·본명 최현희·왼쪽)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새 노래를 내놓았다.

15일 소속사 로스차일드에 따르면 지플랫은 이날 오후 6시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위 노’(We Know)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선보인 싱글 ‘데이 앤드 나이트’(Day and Night) 이후 약 11개월 만의 신보다.

지플랫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포부를 담은 이번 음반에는 ‘위 노’, ‘밝아’ 등 두 곡이 수록됐다.

‘밝아’는 음악을 시작했을 당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곡이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



작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 자신에게 늘 따라붙는 가족 이야기의 ‘백’을 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지플랫은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꾸준한 앨범 발매를 기본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선보이며 힙합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